

연구논문

1인 가구의 인터넷 이용이 사회적 관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다인 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s of Internet Use on Social Relation and
Depression of Single-Person Household:
A Focus on the Comparison between Single-person and
Multi-person Households

배 영^{a)} · 박찬웅^{b)}

Young Bae · Chan-ung Park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비교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을 분석하고, 최근 늘어가고 있는 1인 가구의 주요한 문제점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이용과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여 건강한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울이라는 감정상태가 1인 가구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부족한 관계나 관계 혜택이 감소되는 상황과 선택적 친화력을 나타내고 있기에 1인 가구가 갖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이에 대한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1인 가구의 형성 요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가진 1인 가구 구성원이 우울로 인한 어려움을 보다 심각하게 겪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우울이 관계로부터 기인한 바가 크다는 점에서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관계가 1인 가구 구성원들의 고립이나 관계의 결핍을 극복하여 우울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파악해 보았다.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3034224).

a)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b)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찬웅.

E-mail: chanung@yonsei.ac.kr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비교 분석 결과, 인터넷 이용은 부족한 사회적 관계를 새로이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이용되고 있었고, 인터넷 이용시간은 1인 가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이용이 관계적 활동보다는 정보적 이용에 보다 많은 비중이 주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1인 가구원들의 SNS 활동은 우울감을 낮추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다인 가구원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1인 가구, 다인 가구, 사회적 관계, 인터넷 이용, 우울

The goal of this study is two-fold. First, it compares single-person household and multi-person household to explore characteristics of their social network. Second, putting focus on that major problem of single-person household is often caused by loneliness and depression we examine what is required for healthy social life.

Even though emotional state called as loneliness is not exclusively appeared to single-person household, it is a good starting point to look for countermeasures against common problems in single-person household because it has selective preference with lack of social relations and a situation in which benefits from social relations are decreasing. If it is taken into account that the rise of single-person household can be explained by various factors, we also have to examine what makes single-person household face greater problems caused by depression than others. Since depression is likely to result from lack of social relations, this study further investigates if new social relation building in on-line, which is supposed to make up loneliness or lack of social relations, can be used as a useful measure to heal depression.

Findings go as follows. First, if compared to multi-person household, single-person household tends to use internet not for building new social relations but for maintaining existing social relations. Second, internet use time is greater for single-person household than multi-

person household, implying that single-person household is more likely to use internet for searching information than building social relations. Finally, SNS activity appeared to produc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healing depression only for single-person household.

Key words : single-person household, multi-person household, social relation, internet use, depression

I. 연구의 목적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산업화 이후 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함께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도 큰 변화를 겪었다. 숫적으로는 소인화(少人化)되었고, 가족의 구성 형태 또한 가부장을 중심으로 한 다세대(多世代) 구조에서 수직적 위계는 축소되고 수평적 관계 중심의 형태로 변모해 왔다. 소인화된 가족의 한 유형인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관심이 학문분야별 연구로 이어져 왔다(박주희 2007; 김혜영 외 2007; 정민우·이나영 2011a, 2011b; 정경희 2012). 새로운 가족 형태와 가구 유형 중 1인 가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배경에는 무엇보다 전체 가구에 대한 1인 가구의 수적 증가라는 실질적인 변화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까지만 해도 9.0%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15.6%, 2010년에는 23.9%로 높아져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 4인 가구의 비중을 앞지르게 되었다(고가영 2014).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비중이 25.3%에 이르러,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5년에는 세 가구 중 하나의 비중(31.3%)으로 1인 가구가 되리라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14).

1인 가구의 비중 증가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의한 현상이자 다시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혈연에 기반한 가족은 그 형태와 구성의 특성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되어 왔지만, 아직도 개인들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체(正體)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의 경우보다 오랜 기간에 걸쳐 1인 가구의 증가를 경험한 서구에서의 주요 연구들이 생애사적 관점에서 1인 가구의 증가를 설명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는 1998년의 소위 'IMF사태' 이후 경제적 위기로 인한 비자발적 혹은 구조적 선택의 측면이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서 그 이유를 찾는 연구가 두드러진다. 현재의 시점에서 보다 중요한 점은, 가구를 구성하는 의도와 선택의 유형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개인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다양한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타인과의 효과적인 관계망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삶을 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 특정 가구형태가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가구형태에서 나타나거나 내포된 문제들을 진단하고 해결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학문적인, 그리고 나아가 정책적 관심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고립이나 파편화된 가족으로 인한 문제는 1인 가구의 증가 이전에도 존재해 왔다. 산업화와 함께 전개된 도시화는 기존의 공동체적 삶의 형태와 방식을 근본부터 달라지게 했고, 삶의 기반이 변화하고 마주하는 대상들이 연고와는 관계없는 사람들로 대체되면서 개인들의 삶의 방식도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삶의 기반이 도래하면서 또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데,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도래는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차원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였다. 즉, 온라인 환경은 기존에 인지관계에 있던 개인들을 편리하게 연결해 주는 장이 되고, 전혀 모르던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면서 그 속에서 개인들의 관계망은 확장되고 있다. '약한 유대'에 기반한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관계는 관계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관심에 따라 다양한 관계의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관계는 다양한 혜택을 가져옴과 함께 그 자체가 새로운 사회자본으로서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배 영 2007; 윤여선 2012; 이재신·이영수 2012).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정보화는 편리와 효율을 모두 제공한다. 하지만 정보사회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기존에 이루어지던 관계 속에 배태된 감정적이고 인격적인 요소를 축소시킴으로써 사람들 속에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그 자체만이 남게 되는 우려도 아울러 낳고 있다(조정문 외 1999).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관계 중에서 관계로 인한 의무감이나 책임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방식의 관계를 선호하게 됨으로써 원초적이면서 전통적인 가족과 친지에 대한 몰입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김혜영 외 2007).

변화하는 관계의 내용과 가족 구성형태는 그 자체로도 다양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 해결에 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고독과 우울은 건강한 사회생활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진단되어 왔다(정경희 외 2012). 우울이나 고독이라는 감정상태가 1인 가구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부족한 관계나 관계로 인한 혜택이 감소되는 상황과 선택적 친화력을 나타내고 있기에 1인 가구가 갖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가구 구성원들의 감정 상태, 그 중에서도 우울에 대한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1인 가구의 내적 성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가진 1인 가구 구성원이 이러한 우울로 인한 어려움을 보다 심각하게 겪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우울이 관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관계가 1인 가구 구성원들의 고립이나 관계의 결핍을 극복하여 이러한 우울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늘어나는 온라인에서의 관계를 고려할 때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주요한 사안들에 주목하여 온라인 관계의 특성을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망의 특성이 1인 가구가 가지고 있는 우울이라는 문제와 어떤 영향을 맺고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 삶의 양식이 해체되었고, 이와 함께 개인화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혹은 개인적인 이유에서 추동된 개인화의 결과로 현재 증가추세에 있는 1인 가구들의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과 요소이다. 특히 정보화의 영향으로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근본적 변화가 나타나고 개인들의 일상도 새로이 구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온라인을 통한 사회적 지지 관계망의 형성과 유지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어떠한 유용성을 갖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

1. 1인 가구의 특성과 인터넷 이용

1인 가구의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 가구는 숫적으로 연평균 13만 9천 가구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일반 가구에 비해 내용적으로도 양극화, 고령화, 여성화 등을 특징적으로 나타낸다(정경희 외 2012: 11). 현재와 같은 1인 가구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게 제시된다. 우선 가구 구성원의 자발성을 기준으로 보면 가치관이나 결혼관의 변화를 기반으로 보다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 자발적 선택의 결과로 이루어진 1인 가구가 있다. 반면 인구의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경쟁심화 등 불가피한 사회적 상황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된 경우도 존재한다. 이외에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청년층의 취업 기회나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도 1인 가구를 추동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1인 가구를 구성하게 된 원인과 의도의 차이는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1인 가구를 대상화할 수 없는 근본적 이유로 작용한다. 가구를 구성하는 인원이 한 사람이라는 점은 공통사항이지만, 같은 1인 가구 구성원들 사이에도 이질적 특성과 함께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또한 가구 구성 원인과 함께 개인이 가진 속성적 측면, 즉 연령과 성, 그리고 소득이라는 요소도 내재적 이질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김혜영 외 2007; 변미리 2011; 정재훈 2012).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바는 1인 가구 구성원이 같은 세대의 다인 가구 구성원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사로는 경제적인 측면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적으로는 젊은 세대의 경우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면, 40~50대의 경

우에는 유배우자 상태이지만 직장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가족과 별거하고 있는 사례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남성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경우 재혼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 여성은 반대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일때 재혼에 대한 기대가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김혜영 외 2007). 또한 노년층의 경우에는 성별로는 여성,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농어촌의 비중이 크고 같은 세대의 다인 가구 구성원에 비해 교육수준과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2012).

Kimberly(2010)는 1인 가구들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28세에서 50세를 대상으로 총 22명을 심층인터뷰하였다. 연구의 결과, 1인 가구원들은 사회적으로 단절된 형태를 보인다는 이전의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데 응답자들은 혼자지만 외로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고 있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이용해 타인을 만나거나 자기 관리함으로써 긍정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생물학적 가족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사회적 친구들과의 관계 또한 유지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1인 가구들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과 1인 가구들의 삶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눈 것에 의의가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혼자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사회적 활동과 일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은 타인을 돕고 또 도움을 받는 것이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은 1인 가구들에게 즐거움과 도움을 준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다른 1인 가구에 도움을 주며 더욱 관계를 넓힐 수 있다. 마지막 유형은 활발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다. 1인 가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들과 연결되며 상호 간에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한다.

1991년과 2001년 7개 유럽 국가들(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 루마니아, 그리고 스위스)을 대상으로 65세에서 84세까지의 1인 가구를 통해 연구한 Zueras & Gamundi(2013)의 연구에서는 성별, 나이, 결혼 상태, 교육 수준, 고용 상태 등 1인 가구원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형태를 보이는지에 대해 주목했다. 무엇보다도 결혼 상태에 있어서의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기본적으로 65세에서 84세의 독

거노인들의 비율이 증가함은 물론 결혼하지 않은, 또한 결혼 경험이 없는 1인 가구원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Lixia & David (2011)는 국가별 고유한 특성에 대한 비교와 함께 1인 가구로 살아 온 기간과 성별을 주요한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먼저, 1인 가구 구성 기간의 경우, 장기간 1인 가구를 구성하여 생활한 사람들이 단기간 1인 가구 구성원들에 비해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가구 구성의 내력은 단기간 1인 가구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파트너와 동거를 하다 관계가 악화되어 혼자 살게 된 경우가 많았으며, 장기간 1인 가구들은 결혼 생활 중 사별로 인해 혼자 살게 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 요인으로는 1인 가구를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를 들 수 있다. 남성 1인 가구보다 여성 1인 가구들이 1인 가구라는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남성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 새로운 반려자를 맞이하여 혼자 사는 삶으로부터 변화하려는 것에 적극적이었던 반면,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인 속성과 함께 관계적 속성 역시 1인 가구 연구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변수이다. 하루 24시간이라는 물리적 시간은 개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각자의 삶은 상이한 모습을 나타낸다. 개인들이 타인과 맺게 되는 관계도 어떤 유형과 내용인지에 따라 추구하는 목적과 혜택이 달라진다. 1인 가구의 구성원들은 다인 가구에 비해 물리적으로는 가족 간의 접촉 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다인 가구 구성원들이 가족 간의 관계에 투여하는 시간 등의 자원을 1인 가구 구성원들은 다른 관계나 활동으로 그 부분을 대체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현대인들의 일상생활에 특히 주요한 구성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관계 활동에 주목하였다.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사회적인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가 이루어져 있지만, 이러한 영향들이 과연 실제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와 같은, 영향의 질적인 측면에 관해서는 아직 많은 견해들이 상충하고 있다. 인터넷이 직접적인 면대면 관계를 침식하여 결과적으로 개인들의 고립으로 귀결될 것이라 주장하는 논의들과 함께, 오히려 인터

넷이 보다 자유롭고 풍성한 사회적 관계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유대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논의 또한 존재한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인터넷으로 인해 가능해진 유익하거나 해로운 영향들에 관한 논쟁에서 제기된 관심의 지배적인 양상은 새로운 관계형성이나 관계유지의 효율성이 사회자본으로 특정될 수 있는 실제적인 관계의 혜택으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중심을 두고 있다(배 영 2007; 윤여선 2012; 조성훈 외 2015).

인터넷에서의 관계형성에 대한 논의는 전통적 공동체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동체로서 인터넷 커뮤니티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Rehingold(1993)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가상공간에서 복수의 사람들이 공개적인 담론을 기반으로 형성한 사회적 집합체로 인간적인 감정에 기반하고 있다’고 정의한다. 또한 Blanchard(2000)도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친밀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집단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처럼 비대면적이고 익명적인 인터넷에서의 관계이지만 관계형성과 유지에 있어서 감정 교류가 가능하고 정서적 만족을 줄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있는 관계망으로 인터넷에서의 새로운 관계를 규정했다.

인터넷 커뮤니티가 커뮤니티라는 대상을 중심으로 집단적 관계가 형성된 것이라면 최근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자신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계망이다. PEW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SNS의 이용은 온라인에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사회적 관계를 더욱 활발하게 하는데 중요한 매개가 되고 있다고 나타난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있는 페이스북의 경우, 기존에 인지관계가 없던 대상들과의 새로운 관계형성보다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관계를 유지, 강화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점이 보고되었다(PEW 2015).

이러한 사실은 가족과의 관계망에서는 독립된 형태로 살아가는 1인 가구 구성원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특히 모바일 환경이 본격화되어 스마트폰의 일상적 이용은 SNS의 활용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고려를 필요로 한다. SNS에서의 이용 기반과 관련해 기존의 인간관계(human network) 외에도 관심사(topic)나 활동 시간대(time), 그리고 이용위치 및 공간(location) 등을 추가하여 4가지 관계기반을 중심으로 보다 세부적인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김경달 2012). 통상 SNS에서는 기존의 인간관계 기반을 토대로 서비스 이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편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시간성의 서비스 특성과 함께 다양한 수요 및 적극적 태도를 보유한 이용자 성향에 힘입어 공통의 관심사 기반이나 비슷한 시간대 및 공간을 기반으로 한 관계망의 활성화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1인 가구 구성원들의 경우 기존 가족 구성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에서의 자유로움이 보장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모바일 환경의 도래는 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이루어지는 SNS의 활용이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2. 1인 가구와 우울, 그리고 인터넷 이용

우울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주목하여 주로 논의되었고,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가족관계나 인터넷 이용 등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 주안점을 두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 파악해 보기로 한다. 먼저 가족관계와 우울의 연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성준모(2013)는 패널데이터를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족 요인의 변화가 우울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가족요인으로 가족관계 만족도를 변수로 사용하여 개인의 우울 척도 점수에 따라 ‘지속적인 우울 유지군’과 ‘기타군’으로 나눈 두 집단과의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두 집단 모두 가족관계 만족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는 줄어든다는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박재규와 이정림(2011)도 우울증으로의 이행 및 우울증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했다. 연령, 교육, 경제상태 등 다양한 변수 중 가족관계 만족도의 영향력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우울과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은 그룹일수록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연구 모두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증세가 낮다는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가족관계가 우울증세를 설명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임을 시사하고 있다.

가족관계에 있어 내면적인 차원의 ‘관계의 질’도 중요한 변수지만, 관계의 수나 구성형태와 같은 요소 또한 고려해야 한다. 김중백과 조광덕(2011)은 한국사회의 가족구조 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가족구성원 수와 우울증의 관계에 주목했다. 연구의 결과, 가족구성원 수는 우울증에 부적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4인의 다인가족과 비교할 때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구성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우울증을 보였다. 그러나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의 개인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를 구성하는 요소인 가족구성원 수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는 하나 가구원의 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혹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에 도달한 경우) 그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성준모(2013)의 연구에서도 단독 가구나 한부모 가구,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보다 유의미한 정도로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규 등(2011)은 성별 차이에 주목하여 우울증 이행 및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연령, 교육, 혼인상태, 경제활동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심각한 우울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따른 우울증 정도의 분석결과 배우자가 있는 여성보다 미혼 여성이 높은 우울 지속수준을 나타냈다. 사별이나 이혼, 별거와 같이 배우자를 상실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 비해 우울증이 지속되거나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구성이 해체되었거나 다인 가구를 형성하지 못 하는 등, 혼자 사는 경우 개인의 우울 수준이 높아짐을 밝혀낸 연구라 볼 수 있다.

1인 가구의 우울에 대해서는 특히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다수 연구되었다(원정문 외 1998; 허준수 외 2002; 이현주 외 2008). Lina & Wang(2011)은 노인 1인 가구들과 우울의 관계를 기본적인 속성요인에 기반해 연구하였다. 우울증과의 연관을 성, 나이, 학력, 그리고 결혼 상태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먼저 성별에 따른 노년기 우울은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즉, 1인 가구 중 여성 노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비율은 74%였던 데 비해 남성 노인은 45%의 비율을 보여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연령의 경우는 여성들의 우울증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 반해, 학력 수준은 여성이 아닌 남성 노인들의 우울증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결혼 상태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삼성 외(2012)는 부양가족과 같이 살지 않는 부부노인과 독거노인의 우울감을 비교하여 노인층에서의 배우자 동거 여부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를 통해 부부노인에 비해 독거노인의 우울감 경험 위험이 2.1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고, 이러한 우울감은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남성노인의 경우 독거노인이 부부노인에 비해 우울감 경험 위험이 3.6배 높게 나타났지만 여성노인의 경우 부부노인과 독거노인의 우울감 경험 위험은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우울감 경험에 있어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가 중요 요인임을 밝혀냄과 동시에 남성독거노인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장덕희와 이경은(2013)은 독거노인의 유사가족 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유사가족 관계를 ‘독거노인을 위한 대안적 가족, 즉 가족을 대신하고 대리적 차원에서 노인을 위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노인과 노인 돌보미 사이에 공유하게 되는 가족적 경험’으로 정의하고, 유사가족 관계와 독거노인의 우울 간에는 부적인 영향이 있음을 분석결과를 통해 제시하였다. 독거노인의 경우 직접적인 가족이 아니더라도 타인과의 지속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면 우울 정도가 완화됨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1인 가구에 있어 우울감의 감소에는 실제 가족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명진 외(2014)의 연구에서는 20~60대 이상의 폭넓은 1인 가구 연령대를 확보하여 한국사회의 1인 가구 생활양식 및 특징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중 다인 가구와의 인적 교류를 비교한 부분이 주목할 만하다. 먼저 다른 사람과의 교류 현황을 통해 1인 가구가 얼마나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가를 측정하였는데,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타인과 연결된 사람의 수(직장, 이웃, 단체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적었으며, 연결된 사람들과 생각과 감정의 공유도 다인 가구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었다. 또한 고독과 슬픔,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 요소를 다인 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의 경우 1인 가구가 다인 가구보다 약 3배가량 더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과적으로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사회적 연결망 자체가 작고 감정적 교류도 소극적이었으며 외로움이나 우울감 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우울과 인터넷의 관계를 보면 중독과 관련된 논의가 많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우울,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우울의 매개효과 등이 대표적인 연구주제이지만, 전해정과 김명용(2015)은 노년기의 인터넷 이용과 우울 간의 관계에 주목했다. 건강이나 경제적 이유로 신체적 활동 기회가 감소하는 노년기에 인터넷에서의 활동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전제 하에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우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연구결과 인터넷 이용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독거노인의 인터넷 이용과 우울 간에 매개변수로 작용해 우울에 대한 간접적 효과를 규명했다. 즉 독거노인의 인터넷 이용이 사회적 관계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이러한 만족도가 우울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 나타나듯, 1인 가구원은 전반적으로 사회로부터 고립된 상태이며 관계의 단절에 의해 상당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울에 부(-)적인 영향력을 주는 주요소인 가족관계를 통한 만족감이나 가구 구성원의 수 등은 가족 자체가 없는 1인 가구원에게는 실질적인 영향요인이 아니다. 그들이 겪는 우울은 결국 가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유대의 강화라는 요인이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Ⅲ. 연구방법 및 변수의 설정

1. 연구대상 및 자료의 추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남·여이다. 특히 이 자료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를 비교하기 위하여, 2013년 현재 전체 인구의 약 25%에 이르는 1인 가구의 비율을 50%로 하는 과표집(over sampling) 기법을 적용하였다. 표본은 2,150명으로 전국 16개 시·도별로 120명씩(1인 가구 60명+다인 가구 60명) 유의할당하였고, 잔여 표본은 지역별 인구비례에 의한 할

당 후 다단계층화추출(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을 통해 획득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표본을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로 나누어 1,075명씩 유의할당하고, 그 다음으로 16개 시·도별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각각 60명씩 유의할당하였다. 그 다음 단계에서 잔여표본은 지역별로 인구비례할당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1인 가구는 1인 가구 비율, 다인 가구는 전체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했다. 지역 내 표본구성은 2010년 인구총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로 할당하였고, 1인 가구는 1인 가구 비율을, 다인 가구는 전체 인구 비율 기준을 따랐다.

〈표 1〉 응답자 속성 (단위: 명, %)

		사례 수(명)	비율(%)
전체		2,150	100.0
가구형태	1인 가구	1,075	50.0
	다인 가구	1,075	50.0
성별	남자	1,019	47.4
	여자	1,131	52.6
연령	20대	382	17.8
	30대	406	18.9
	40대	393	18.3
	50대	352	16.4
	60대 이상	617	28.7
지역 규모	서울/광역시	947	44.0
	시 지역(동)	702	32.7
	시 지역(읍/면)	240	11.2
	군 지역(읍/면)	261	12.1
학력	중졸 이하	572	26.6
	고졸	748	34.8
	대학재학 이상	823	38.3
	모름/무응답	7	0.3

16개 시·도는 27개 층으로 다시 구분되었다. 27개 층은 각각 서울 4개, 부산 1개, 대구 1개, 인천 1개, 광주 1개, 대전 1개, 울산 1개, 경기 2개, 강원 2개, 충북 2개, 충남 2개, 전북 2개, 전남 2개, 경북 2개, 경남 2개, 제주 1개 층으로 구분된다. 즉, 서울은 동북, 동남, 서북, 서남 4개 층으로 구분하고, 광역시와 제주는 1개 층, 나머지 도는 2개 층으로 구분된다. 서울, 광역시, 제주는 동부로 구분하고, 나머지 지역은 읍·면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층별 읍·면·동을 가나다순으로 정렬하고, PPS(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 방식에 따라 조사할 읍면동을 지정하였다(단, 1인 가구의 경우 조사대상 발생 비율을 고려하여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출). 그리고 지정된 읍·면·동 내에서 중간 순위 국가기초구역¹⁾을 추출하였다.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한계는, 무작위 추출을 전제했을 때, $\pm 2.1\%$ 포인트이다. 구체적으로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대면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2. 변수 및 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를 비교하여, 관계에 미치는 인터넷의 영향을 살펴보고, 늘어가는 1인 가구의 비중을 고려하여 새로운 관계망으로서의 온라인 관계에 대해 분석해 본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활동이 1인 가구원들이 겪고 있는 우울감 감소에 도움이 되는지를 다인 가구원들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해 보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연구가설 1. 1인 가구원은 다인 가구원에 비해 일상생활에서의 인터넷 이용에 보다 적극적일 것이다.

연구가설 2. 1인 가구원의 온라인 관계망은 다인 가구원에 비해 기존의 관계유지보다는 새로운 관계형성에 보다 적극적일 것이다.

연구가설 3. 1인 가구원의 온라인에서의 활동은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국가기초구역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행정의 기초단위(구역)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형지물, 인구,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분석에 활용될 변수는 기본적인 속성변수라 할 수 있는 성, 연령, 주관적 계층을 포함하여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 변수인 직장, 학교, 지역, 동호회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친해진 관계망의 크기, 인터넷 이용 관련 변수인 인터넷 이용시간, SNS 서비스별 활용 정도, 온라인에서 새로운 관계형성 경험 등을 이용하였다. 이와 함께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는 Beck의 우울감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1961)를 참고하여 설문을 작성하였다. Beck의 척도는 자기보고식 척도로 우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신체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21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화하기 쉬운 지시절차만으로 쉽게 실시할 수 있어 다수의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 있어서는 최근 일주일간의 기분 상태를 묻는 20가지 문항²⁾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 합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IV. 분석 결과

1. 가구형태별 인터넷 이용에 대한 기초분석

먼저 가장 기본적인 측정변수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자의 65.2%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1인 가구원과 다인 가구원의 비교를 통해 보면 1인 가구원이 다인 가구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56.3%를, 다인 가구원은 74.0%를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가구 구성을 압도하는 변수는 연령 혹은 세대 변수였다. 만 40세 미만의 연령대에서는 98% 이상 인터넷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데

2) 20가지 문항의 내용은 ‘식욕이 없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말을 많이 하고 싶지 않다’, ‘우울하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힘들고 귀찮다’, ‘나의 우울함을 해소시켜 줄 사람이 주변에 없다’, ‘불행하다’, ‘마음이 슬프다’, ‘화가 난다’, ‘불만이 많다’, ‘외롭다’, ‘사람들은 나에게 차갑게 대한다’, ‘사람들은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한다’, ‘나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없다’, ‘내 인생이 허무하다’, ‘내 미래는 어둡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실패작이다’, ‘나는 보통사람들보다 능력이 부족하다’, ‘앞으로 내가 겪을 일들이 미리 두렵게 느껴진다’ 등이다.

비해, 50대의 경우에는 56%, 그리고 60대 이상의 응답자 중 14% 정도만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별 정보격차는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표 2>에도 잘 나타나듯이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1인 가구원

<표 2> 가구형태 및 연령별 인터넷 이용 여부 (단위: 명)

연령 구분		인터넷 이용 여부		전체
		사용하고 있다	사용하지 않는다	
~만 29 세	1인 가구	190 (98.4%)	3 (1.6%)	193 (100.0%)
	다인 가구	188 (99.5%)	1 (0.5%)	189 (100.0%)
만 30 세 ~ 39 세	1인 가구	181 (97.3%)	5 (2.7%)	186 (100.0%)
	다인 가구	218 (99.1%)	2 (0.9%)	220 (100.0%)
연령별 만 40 세 ~ 49 세	1인 가구	128 (81.5%)	29 (18.5%)	157 (100.0%)
	다인 가구	214 (90.7%)	22 (9.3%)	236 (100.0%)
만 50 세 ~ 59 세	1인 가구	78 (47.6%)	86 (52.4%)	164 (100.0%)
	다인 가구	120 (63.8%)	68 (36.2%)	188 (100.0%)
만 60 세 이상	1인 가구	28 (7.5%)	347 (92.5%)	375 (100.0%)
	다인 가구	56 (23.1%)	186 (76.9%)	242 (100.0%)
가구별	1인 가구	605 (56.3%)	470 (43.7%)	1075 (100.0%)
	다인 가구	796 (74.0%)	279 (26.0%)	1075 (100.0%)
전체		1,401 (65.2%)	749 (34.8%)	2,150 (100.0%)

과 다인 가구원 간의 정보격차가 크지 않은 반면 연령이 높아지면서 다인 가구원의 인터넷 이용률이 1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가정에서의 인터넷 이용의 특성상 다른 가구 구성원들이 존재하는 다인 가구의 경우 본인의 필요와 함께 동거 가족들의 필요에 의해 인터넷 이용이 이루어진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 인터넷 이용시간을 가구형태와 연령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인터넷 이용시간에 대한 분석은 전체 응답자가 아닌 인터넷 이용자 1,401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들의 인터넷 평균 이용시간은 145.9분으로 나타났다는데, 이 중에서 1인 가구의 평균 이용시간은 153.0분, 다인 가구는 139.7분으로 나타나 1인 가구의 인터넷 이용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표 4>에 나타나듯 90%의 확률수준에서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연령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앞서 살펴 본 인터넷 이용률의 결과와 비슷한 추이가 발견되었다. 즉, 젊은 세대인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이 194.1분과 159.8분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었던 반면, 50대와 60대의 연령대에서는 각각 90.09분과 89.0분으로 나타나 인터넷 이용시간에 있어서 기본적인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20대와 40대의 경우에는 1인 가구원들의 인터넷 이용이 더 많이 이루어진 데 비해 30대와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다인 가구원의 인터넷 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가설1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와 연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하루 24시간이라는 물리적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부여되지만, 생활시간의 구성은 개인의 활동과 기본적인 가치관, 그리고 소속집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일상생활 영역에 있어 홀로 생활시간을 구성하게 되고, 다인 가구에게서 나타나는 가족과의 관계 시간을 대체하는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이 현대인들에게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오락, 그리고 관계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가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가족과의 관계 영역을 대체하는 영역으로 인터넷 이용을 설정하고 1인 가구원과 다인 가구원의 인터넷 이용양상을 비교하였다. 분석을 통해 나타난 바는 1인 가구원이 다인 가구에 비해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구형태의 차이보다는 세대 간의 차이 효과가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3> 가구형태 및 연령별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연령	1인 가구			다인 가구		
	평균	N	표준편차	평균	N	표준편차
-만 29 세	202.0895	190	168.61119	182.7340	188	140.07391
만 30 세~39 세	154.0773	181	120.82643	164.6239	218	150.07545
만 40 세~49 세	137.4219	128	128.01480	112.9907	214	100.63731
만 50 세~59 세	82.0513	78	74.63085	96.7083	120	112.15703
만 60 세 이상	82.8571	28	84.23324	92.0536	56	82.01872
전체	153.0496	605	139.31156	139.6759	796	130.62889

<표 4> 가구형태별 인터넷 이용시간에 대한 독립표본 검정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인터넷 평균 이용시간 비교	독립표본검정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측	평균 차이	차이의 표준 오차	차이의% 신뢰구간	
						하한	상한
인터넷 이용 시간 등분산을 가정함	1.844	1399.000	.065	13.37371	7.25160	-.85147	27.59889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1.828	1255.142	.068	13.37371	7.31546	-.97817	27.72558

2. 가구형태별 온라인 관계 경험

다음으로는 가설2에 대한 검토를 위해 인터넷 이용이 갖는 의미를 세분하여, 일반적인 차원에서 정보를 찾고 다양한 오락적 용도로 인터넷이 활용되는

측면보다는 관계적 도구로서 갖는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 1인 가구원은 현재의 생활공간 속에서 가족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에서의 관계망이 가족의 부재를 대체할 관계망으로 기능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온라인에서의 관계형성에 이용되는 서비스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그 형성 기반에 따라 관계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관계는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온라인 서비스의 활용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이다. 또다른 관계는 전혀 인지관계는 없었지만 의도된 목적과 동기를 기반으로 하여 온라인에서 새롭게 관계를 맺게 된 대상들이다.

온라인 관련 초기 연구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온 부분은 새로운 관계형성 기반으로서의 온라인 공간이다. 다시 말해, 온라인이 갖는 성격이 비대면적이고 익명적이라는 특성이 존재하기에 기존의 속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가능성의 공간으로서 온라인이 과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실험이 이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다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족과의 접촉이 부족한 1인 가구원이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가설2의 문제설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검증을 위해 ‘이전에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은 없지만 온라인에서 교류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들에게 질문했다. 조사결과, 1인 가구 구성원이 다인 가구 구성원에 비해 다소 높은 16.9%의 응답자가 오프라인에서의 인지관계가 없는 새로운 대상과 관계를 맺었거나, 맺고 있다는 응답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다인 가구원은 약 14%의 응답자만이 그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집단의 차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대별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20대의 경우에는 다른 세대에 비해 훨씬 높은 20.9%의 응답자가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이러한 차이는 가구 구성원의 숫자보다는 세대 요인과 인터넷 이용 요인, 즉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이 얼마나 밀착되어 이용되고 있는지 등이 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가구형태별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관계 경험 여부

	1인 여부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관계 경험 여부	1인 가구	605	.17	.375	.015
	다인 가구	796	.14	.348	.012

<표 6>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관계 경험에 대한 가구형태별 평균차 검증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관계 경험 비교	독립표본검정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측	평균 차이	차이의 표준 오차	차이의% 신뢰구간		
						하한	상한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관계 경험 여부	1.437	1399.000	.151	.028	.019	-.010	.066	
등분산을 가정함	1.423	1247.875	.155	.028	.020	-.011	.066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이러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재 온라인에서의 관계망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활용되는 SNS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때 SNS 이용에 있어 두 가지 차원을 함께 고려했는데, 하나는 응답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SNS의 종류이고, 다른 하나는 SNS를 이용함에 있어 주로 관계하고 있는 인맥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SNS의 종류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서비스인 페이스북과 트위터, 그리고 모바일 기반의 환경에서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인맥의 경우에는 SNS에서 주로 만나서 교류하는 사람들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분석에 있어서는 SNS의 종류와 인맥의 종류를 교차하여 이용하였다. 이는 가설2에서 검증하고자 했던 관계 인맥의 종류 중 새로운 관계에 대한 비중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SNS 서비스 중 페이스북은 친구 승낙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방식으로 현실 공간의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원래 알던 사람들 사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주로 관찰된다. 반면, 트위터는 친구 승낙 과정이 없는 일방적 구독 모델이고 개별 포스트가 등가적(等價的)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일방적인 관계맺기 방식과 함께 글로벌 서비스라는 특징에 따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새로운 대상과의 연결이 훨씬 용이한 서비스로 평가받는다(김경달 외 2013: 103). 이 외에도 카카오톡은 실시간 메시지의 특성을 갖는 서비스로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아이디를 알아야 친구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관계 대상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주로 이용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표 7> 가구형태별 SNS 이용 정도

	일인 여부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페이스북 이용 정도	1인 가구	555	1.0144	1.77217	.07522
	다인 가구	747	.8527	1.67372	.06124
트위터 이용 정도	1인 가구	577	.3744	1.03342	.04302
	다인 가구	779	.2875	.86312	.03092
카카오톡 이용 정도	1인 가구	569	4.3269	1.46988	.06162
	다인 가구	749	4.1268	1.72003	.06285

먼저 세 가지 SNS 서비스의 이용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서비스는 카카오톡인 것으로 나타났고, 트위터의 이용이 세 가지 서비스 중에서는 가장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구형태별로 파악했을 때는 1인 가구원들이 다인 가구원들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표 8>에서 보이듯이 카카오톡을 제외하고는 95%의 유의확률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양상을 통해 1인 가구원들이 다인 가구원에 비해 온라인에서의 관계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것은 파악이 가능했다.

<표 8> SNS 종류별 이용 정도에 대한 가구형태별 평균차 검증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에 대한 독립표본검정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측	평균 차이	차이의 표준 오차	차이의% 신뢰구간	
							하한	상한
페이스북 이용 정도	등분산을 가정함	1.681	1300	.093	.16167	.09619	-.02703	.35037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1.667	1154.919	.096	.16167	.09700	-.02864	.35198
트위터 이용 정도	등분산을 가정함	1.682	1354	.093	.08680	.05159	-.01441	.18801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1.638	1106.329	.102	.08680	.05298	-.01716	.19076
카카오톡 이용 정도	등분산을 가정함	2.225	1316	.026	.20005	.08991	.02367	.37644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2.273	1297.878	.023	.20005	.08802	.02738	.37273

그렇다면 이러한 SNS를 통해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지를 파악해 보았다.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서비스에 걸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친구로 나타났고, 카카오톡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족이나 친척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가설2의 검증과 관련하여 주목이 필요한 부분은 ‘기타’ 인맥이다. 조사결과 기타 인맥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주로 기존에 알고 지낸 관계가 아니라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람들로, 앞서 살펴보았던 온라인 공간에서의 새로운 관계 맺음의 결과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관계형성에 효과적인 서비스인 트위터의 경우, 트위터 이용자의 27.5%가 기타 인맥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관계망의 주요 인맥으로 꼽고 있고, 특히 1인 가구원의 32.4% 응답자가 여기에 해당하여 다인 가구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세 가지 서비스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관계망 형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한 유대에 기반하여 제한된 정보만으로

도 새로운 관계형성이 가능한 트위터에서만 인맥의 종류와 가구 구성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 9> SNS별 주요 인맥 분포에 대한 교차분석

		다음의 서비스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전체	df	χ^2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동호회/ 동호인	기타			
페이스북	1인 가구	7 (3.4%)	148 (71.5%)	14 (6.8%)	14 (6.8%)	24 (11.6%)	207 (100.0%)	1.453	
	다인 가구	6 (2.7%)	170 (76.2%)	11 (4.9%)	14 (6.3%)	22 (9.9%)	223 (100.0%)		
	전체	13 (3.0%)	318 (74.0%)	25 (5.8%)	28 (6.5%)	46 (10.7%)	430 (100.0%)		
트위터	1인 가구	2 (1.9%)	54 (51.4%)	10 (9.5%)	5 (4.8%)	34 (32.4%)	105 (100.0%)	4	11.210**
	다인 가구	1 (0.9%)	58 (54.7%)	5 (4.7%)	18 (17.0%)	24 (22.6%)	106 (100.0%)		
	전체	3 (1.4%)	112 (53.1%)	15 (7.1%)	23 (10.9%)	58 (27.5%)	211 (100.0%)		
카카오톡	1인 가구	81 (14.5%)	441 (79.2%)	22 (3.9%)	9 (1.6%)	4 (0.7%)	557 (100.0%)	3.236	
	다인 가구	108 (15.6%)	551 (79.4%)	16 (2.3%)	14 (2.0%)	5 (0.7%)	694 (100.0%)		
	전체	189 (15.1%)	992 (79.3%)	38 (3.0%)	23 (1.8%)	9 (0.7%)	1251 (100.0%)		

* $p < .1$, ** $p < .05$, *** $p < .01$

이러한 분석 내용을 통해, 온라인에서의 관계유지를 위한 SNS 활동에 있어서 1인 가구원들의 활동이 다인 가구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트위터 서비스의 사례를 통해 볼 때 1인 가구원들이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관계 형성에 보다 적극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3. 우울감에 대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요인 비교

1인 가구원들이 느끼는 우울감에 대한 연구는 노년 세대의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렇듯 1인 가구 전반을 대상으로 우울의 문제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 내부의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관통하는 특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속성변수 및 관계변수, 그리고 인터넷 이용변수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울감이 1인 가구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관계의 부족, 관계 혜택의 감소, 선택적 친화력 등이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1인 가구원들이 느끼는 우울감에 기본적인 속성변수라 할 수 있는 성, 연령, 수입 등의 변수와 함께, 오프라인에서의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를 포괄하는 직장 및 이웃, 그리고 사회활동 관계망의 영향 등의 변수도 함께 분석하였다. 또한 인터넷 이용관련 변수를 활용하였는데, 특히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관계가 1인 가구 구성원들의 고립이나 관계의 결핍을 극복하여 우울감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파악해 보았다.

회귀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인 가구원에 대한 모델은 응답자의 우울감에 대한 총변량의 8%를 설명한다($F=3.024$, $p < .01$). 표준화계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울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터넷 이용변수 중 카카오톡 이용 정도로 나타났고($\beta = -.191$, $p < .01$), 이 결과는 카카오톡의 이용이 활발할수록 우울감의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동호회나 봉사활동과 같은 사회활동을 통해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도 우울감의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beta = -.131$, $p < .05$), 두 가지 영향과는 반대로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관계를 맺은 경험은 오히려 우울감을 증진시키고 있는 요소로 파악되었다($\beta = .150$, $p < .05$). 이 외에 1인 가구원의 기본적인 속성변수들은 우울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인터넷 이용 시간이나 페이스북의 이용 정도 또한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10> 가구형태별 우울감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수=우울감		1인 가구				다인 가구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모형	<i>B</i>	표준 오차	β	<i>B</i>		표준 오차	β		
	속성변수	(상수)	21.381	2.353		9.086 ^{***}	18.926	1.896	9.985 ^{***}
성별(남성=1)		-.885	.669	-.068	-1.325	-1.010	.518	-.090	-1.952 [*]
연령		.013	.036	.022	.344	-.024	.029	-.050	-.844
가구수입		.197	.219	.047	.899	-.214	.141	-.071	-1.523
관계변수	직장 및 학교 관계망	-.041	.093	-.023	-.441	.088	.062	.070	1.436
	이웃 관계망	.132	.079	.114	1.659	-.035	.053	-.033	-.655
	사회활동 관계망	-.049	.027	-.131	-1.849 ^{**}	-.034	.021	-.084	-1.634 [*]
인터넷이용변수	인터넷 이용시간	-.001	.003	-.013	-.248	.003	.002	.073	1.521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관계 경험 여부	2.803	.992	.150	2.825 ^{**}	.173	.771	.010	.224
	페이스북 이용 정도	-.289	.225	-.078	-1.287	.153	.179	.045	.858
	트위터 이용 정도	.021	.358	.003	.059	-.147	.288	-.025	-.512
	카카오톡 이용 정도	-.835	.242	-.191	-3.443 ^{***}	-.035	.155	-.011	-.223
<i>F</i>		3.024 ^{***}			1.832 ^{**}				
<i>R</i>		.287			.200				
<i>R</i> ²		.082			.040				

* $p < .1$, ** $p < .05$, *** $p < .01$

다인 가구원의 경우에는 회귀모형은 유의미하지만($F=1.832, p<.05$), 모델의 설명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2=.040$). 1인 가구원들의 회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회활동을 통해 친하게 지내는 관계망은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beta=-.084, p<.1$). 인터넷 이용관련 변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했다. 속성변수에 있어서는 1인 가구원들의 경우와 달리 다인 가구의 여성들이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1인 가구원이나 다인 가구원 모두 사회활동을 통해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수록 우울감의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반면, 직장이나 학교, 이웃 관계망들과의 교류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는 1인가구원들에게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기존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카카오톡을 통한 교류가 많은 것은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인지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관계는 오히려 우울감을 크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가설3에서 검증하고자 했던 내용, 즉 1인가구원들에게 온라인에서의 활동은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설은 관계의 종류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인터넷 이용과 온라인 관계망에 대한 비교를 통해 가구형태에 따른 특성은 무엇이고, 가구원들의 우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터넷 이용의 경우 1인 가구원이 다인 가구원에 비해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구형태의 차이보다는 세대 간의 차이 효과가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1인 가구원은 현재 생활하고 있는 공간 속에서 가족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

인에서의 관계망이 가족의 부재를 대체할 수 있는 관계망으로 기능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하였다. 분석을 통해 1인 가구원들이 다인 가구원에 비해 온라인에서의 관계 활동에 적극적이며, 인맥의 성격상 새로운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울감에 대한 일인가구와 다인 가구의 요인 비교에 있어서는 1인 가구원이나 다인 가구원 모두 사회활동을 통해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수록 우울감의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반면, 직장이나 학교, 이웃 관계망들과의 교류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과 우울 간의 관계는 1인 가구원들에게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기존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카카오톡을 통한 교류가 많은 것은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인지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관계는 오히려 우울감을 크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사회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또는 상대적으로 가족의 부재로 인해 여유로운 시간의 활용을 위해 젊은 1인 가구는 PC나 통신기기를 사용하여 사회적 관계유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은 새로운 관계를 통한 실질적 혜택의 수혜는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을 통해 살펴본 듯이 1인 가구원들이 온라인에서 인지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에서만 우울감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모르는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는 오히려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지속적인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양적인 면에서의 관계의 범위나 양은 증가하고 있지만 관계로 인한 혜택은 거기에 비례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1인 가구원들에게 온라인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관계가 기존의 가족이나 친구를 대체할 수 있는 관계망으로 활용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노년층 1인 가구는 정보화와 관련된 기기 및 서비스의 사용에 있어 다른 세대와 많은 격차를 나타내고 있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리고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 해결의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정책적인 차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IT 교육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고립과 소외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시설 확충이 보다 더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1인 가구와 우울의 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들은 주로 노인 1인 가구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1인 가구 전반의 정서적 상태나 그들의 거주 형태가 개인적 차원에서 의미하는 바를 여타 변수들과의 관계 속에서 총체적으로 설명해내지 못하였다. 사회 인구학적 변수 이외에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다룰 때에도 사회관계망의 객관적·구조적 차원이나, 주관적·기능적 차원 중 하나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포괄적인 차원의 논의가 어려웠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의 부재는 만약 1인 가구가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더 심각한 우울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울감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논의의 부재로 연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 전반에 대한 검토에서 기존의 변수와 함께 인터넷 이용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도입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와 효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고가영. 2014. “1인 가구 증가 소비지형도 바꾼다.” 《LG Business Insight》 2014. 1. 8.
- 김경달. 201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피로감 개념 탐색 및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 김경달·김현주·배영. 2013. “스셜네트워크 서비스의 피로감 요인에 관한 연구.” 《정보와사회》 26: 102-129.
- 김중숙. 2014. 《세대별, 성별 1인 가구의 고용과 가구경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중백·조광덕. 2011. “가족구성원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개인적 특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대한보건협회 보건종합학술대회 2011》. 대한보건협회.
- 김혜영·선보영·진미정·사공은희. 2007. 《비혼 1인 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재규·이정림. 2011. “한국 성인 남녀의 우울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과 사회과학》 29: 99-128.

- 박주희. 2007. 《서울시 1인 가구의 분포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 영. 2007.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사회자본: 사회자본 논의의 이론적 쟁점과 실천적 과제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3(2): 54-81.
- 변미리. 2011. “1인 가구 증가와 도시정책수요.” 《Urban Affairs》 5: 34-39.
- 성준모. 2013.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가구 경제 요인.” 《사회과학연구》 24(2): 207-228.
- 윤여선. 2012. “인터넷 이용기반과 이용유형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SNS관계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진·최유정·이상수. 2014. “1인 가구의 현황과 사회적 함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7(1): 229-253,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이재신·이영수. 2012. “사회자본과 SNS.” 한국언론학회 제1차 기획연구, 《한국 사회의 정치적 소통과 SNS》 61-80.
- 이현주·강상경·이준형. 2008. “노인우울증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요인과 건강행태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8(4): 1129-1145.
- 장덕희·이경은. 2013. “독거노인의 유사가족 관계와 우울에 관한 연구.” 《한국 지역사회복지학》 46: 229-254
- 전혜정·김명용. 2015. “사회적 관계 만족도를 매개로 한 노년기 인터넷 이용과 우울 간의 구조모형 분석: 서울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3: 73-98
- 정경희·남상호·정은지·이지혜·이윤경·김정석·김혜영·진미정. 2012. 《가족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1인 가구 증가현상과 생활 실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민우·이나영. 2011a. “‘가족’의 경계에 선 청년세대.” 《경제와 사회 봄》 89: 105-145.
- 정민우·이나영. 2011b. “청년 세대, 집의 의미를 묻다.” 《한국사회학》 45(2): 130-175.
- 정재훈. 2012.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정책 조명.” 《가족정책포럼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자료집》 21-2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정책전략센터.
- 조성훈·권정혜. 2015. “온라인·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은 교량적·결속적 사회자본 축적에 보탬이 될 것인가?: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을 통한 인과관계

-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29(1): 107-125.
- 조정문 · 임정덕 · 김성국 · 이대식 · 김영삼 · 조영복 · 신종국. 1999. “정보화시대의 공동체-가족규범의 변화.” 《한국사회학》 33(여름): 389-415.
- 한삼성 · 강성욱 · 정성화. 2012. “독거노인과 부부노인의 우울감 및 자살생각 경험.” 《보건의료산업학회지》 6(3): 29-38.
- 허준수 · 유수현. 2002.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3: 7-35.
- Blanchard A. & T. Horan 2000. “Virtual Communities and Social Capital.” *Social Dimens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Issues for the New Millennium*. Garson. D.(ed.). *Idea Group Publishing* 6-22.
- Kimberly E. 2010. Living Alone, Staying Connected: Strategizing Relationship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Annual Meeting, Hilton Atlanta and Atlanta Marriott Marquis, Atlanta, GA, Aug 14, 2010.
- Pao-Chen Lina and Wang Hsiu-Hung. 2011.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Adults Living Alone: An Analysis of Sex Difference.” *Aging Mental Health*. 15(8):1038-44.
- PEW Research center, 2015. Social Media Update 2014. source: <http://www.pewinternet.org/2015/01/09/social-media-update-2014/>
- Qu, Lixia, David de Vaus. 2011. “Starting and Ending One-person Households: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Family Studies* 17: 126-145.
- Rheingold, H. 1993. *The Virtual Community*. NY: Maddison-Wesley Company.
- Zueras, Pilar and Pau Miret Gamundi (2013). “Elderly Who Live Alone: An Overview Based on the 1991 and 2001 Censuses.” *Revista Española de Investigaciones Sociológicas* 144: 139-152.

<접수 2015/4/21, 수정 2015/5/29, 게재확정 2015/8/21>